

번호 11-3

제 목	국문	C형 간염 유행지역에서 위험요인으로서의 침과거력				
	영문	History of Acupuncture and risk of hepatitis C virus infection among Korean adults in HCV endemic rural area: A Community-Based Survey in Korea	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신혜림 ¹ , 김준연 ¹ , 김정일 ² , 이덕희 ³ , 유근영 ⁴ , 이동순 ⁵ 1. 동아의대 예방의학교실, 2. 동아의대 산업의학교실, 3. 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, 4.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, 5. 서울의대 임상병리학교실				
	영문	Hai Rim Shin ¹ , Joon Yeon Kim ¹ , Jung Il Kim ² , Duck Hee Lee ³ , KeunYoung Yoo ⁴ , Dong Soon Lee ⁵				
분 야	보건관리 ()	발 표 자	일반회원 (0)	발표 형식	구 연 (0)	
	역 학 (0)		전 공 의 ()		포스터 ()	
진행 상황	연구완료(), 연구중(0) → 완료 예정 시기 : 2000 년 12 월					
<p>1. 연구 목적 간암사망율이 2배 이상 높고, C형 간염 유병율이 높다고 알려진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유병율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으로 침과거력의 역할을 알고자 함</p> <p>2. 연구 방법 1999년 4월 일개 면 4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였다.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훈련된 설문요원이 생활습관과 질병과거력 등에 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. 정맥혈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 후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였고, anti-HCV검사는 immuno-radiometric assay로 검사를 하였다. anti-HCV 양성인자를 대상으로 Amplicor HCV kit로 HCV RNA를 검사하였으며, HCV RNA 양성인 경우는 RT-PCR 방법으로 HCV genotype을 알아보았다. 자료의 분석은 anti-HCV 양성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알고자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, C형 간염의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진 수혈력에 대해서는 처음 수혈을 받은 연도를 1991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으며 (이는 1991년 4월에 헌혈자를 대상으로 anti-HCV screening을 실시하였기에 구분하여 분석하였음), 침과거력에 대해서는 1980년도 이전, 1980년- 1989년, 1990년도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. 다변량분석을 위하여는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.</p> <p>3. 연구 결과 anti-HCV 유병률과 연령보정유병율은 각각 10.7%, 10.3%(95% 신뢰구간:8.1-12.6)였다. 여성의 anti-HCV 양성율(13.3%)이 남성 (7.1%)보다 높았다 (p=0.014). 여성에서는 연령이 많음에 따라 anti-HCV 양성율이 높았다 (0.001). 여성에서는 침을 맞은 과거력이 1990년 이전 (보정비차비 6.2:95% 신뢰구간 1.8-20.8)과 1990년 이후 (보정비차비 5.5:95% 신뢰구간 1.8-16.3) 모두 유의한 위험요인이었으나, 남성에서는 유의한 위험요인이 아니었다.</p>						

anti-HCV 양성자 들 중에서 HCV RNA양성율은 61.8%였다. HCV RNA 양성율은 여자 (58.2%)에서 보다 남자 (68.4%)에서 높았다. HCV genotype 2a가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는 1b가 많았다. HCV PCR양성자의 85% 이상이 침을 맞은 과거력이 있었다. HCV genotype 2a인 여성들의 60%는 1990년 이후에 침을 처음 맞았다고 하였다. 이는 이 지역에서는 여성에 있어서 연령이 많을수록 C형 간염의 유병률이 높은 것은 과거에 C형 간염의 유행이 있었으며, 최근 10년 이내에도 침으로 인한 C형 간염의 전파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.

4. 고 찰

우리나라에서 C형 간염 유병률에 대한 자료는 헌혈자, 고위험군 (혈액투석자 등), 또는 신체검사자를 대상으로 것이 대부분이며, 이 연구보고들에서 anti-HCV 양성율은 약 1.0%에서 3.5% 이내이다.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0.9% 라는 보고가 있다. 이 연구의 대상지역은 간암사망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남자 2.2배, 여자 1.5배 높은 지역이다. 1993년 같은 지역내 다른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nti-HCV 양성율이 10.6%였으며, 침과거력이 C형 간염의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. 일본과 타이완에서는 C형 간염이 풍토병화한 지역이 있으며, 그런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의료행위를 통한 전파 또는 소독되지 않은 / 일회용이 아닌 침에 의한 전파로 인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. 우리나라에서는 C형 간염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수혈력은 유의한 위험요인임을 알아낸 보고는 있으나, 침과거력이 C형 간염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는 이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 외에는 없었다. 본 연구에서는 같은 지역내 다른 마을 주민들에서도 C형 간염 양성율이 높은가를 확인하고, C형 간염 감염에 대한 침과거력의 역할을 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여, 40세 이상 성인 (특히 여성)에서 높은 C형 간염 유병률을 확인하였고, 최근 10년 이내에서도 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C형 간염의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.

5. 결 론

이 연구는 간암사망율이 높다고 알려진 농촌지역의 높은 C형 간염 유병률을 확인하였으며, 이 endemicity는 (특히 HCV genotype 2a) 침과거력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았다. 이 지역에서 HCV 감염이 지난 10년 이내에도 일어났다고 할 수 있으며, 이는 소독되지 않은 또는 일회용이 아닌 침에 의해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다.